

# 국힘-민주 '윤-이 영수회담' 신경전 팽팽

민주 “윤, 국정기조 대전환해야”  
“특검 과감히 수용해 의혹 해소”  
국힘 “李 진심 국민이 지켜볼 것”  
“일방적 강경 요구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29일 오후에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회담 성격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이고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며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서명 브리핑을 내고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독주를 더



윤석열 대통령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총선 민의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민의를 전할 것이며, 이제 윤 대

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영수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 안 된다”며 총선 결과를 앞세워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7일 논평에서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 왔던 의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 요구를 경계하고 나선 모습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큰 사안일수록 한발 물러서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먼저 민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스

## 민주, 5월2일 국회 본회의 소집 요구

여 “의회 독재 시즌2” 반발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의회 독재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락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6일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면서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쟁점 법안,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뭔가 좀 회담과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의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서왕진

2차 당직 인선 단행

조국혁신당은 28일 서왕진 당선인을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2차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직 인선에 따르면, 혁신정책연구원 정책부원장에는 유대영 전 청와대 자치

전비서관, 전략부원장에는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임명됐다.

경제특보에는 홍종학 전 중소기업부 장관, 법률특보에 김형연 전 법제처장, 통일특보에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홍보특보에 김동규 동명대 교수, 해외특보에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교육특보에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로는 박은정 당선인을 위촉했다.

윤리위원회에 권운일 위원장, 법률위원회에 서상범 위원장, 그리고 당헌당규제정위원회에 이광철 위원장,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정상진 위원장을 인선했다.

정책위원회의의 실무를 총괄하는 정책실장에는 장성훈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 총선 당선인들 “지역 현안 상시 논의”

제22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를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를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 등 8명의 당선인은 지난 26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인들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8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김은지 기자

## 조석호 광주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사진)은 지난 26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립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3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

사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상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조석호 의원을 좌장으로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김행란 소화이람일러 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각계각층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이선미 정책연구실장이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 광주에 적합한 처우개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복지선도도시 광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